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메시야의 탄생

구주 탄생을 맞이 할때마다 느끼는것이 무엇이나 하면 예수님의 처녀탄생이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하여 논의하며 여러면으로 논쟁을 전개하여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처녀탄생을 믿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단지 기독교의 한 행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14절에 있는데 그 말씀안에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씀의 번역이 즉 동정녀가 아니고 젊은여자라고 번역할수 있다는 론설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한층 예수의 처녀 탄생에의 문을 느끼게 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현대인들은에수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거나 젊은여자의 몸에서 탄생했거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마지할때마다 베들레헴에서나신 예수는 마리아라는 처녀 몸에서 나신것을 무시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못할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구주성탄 이다 우리죄인의 속죄주로써 나신 예수님이고로 여기에 관하여 그저 무책임게 그냥 넘어갈수 없다

우리들은 소리높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어야할것이다 구약성서안에 「알마-」라는 말씀이 전부 아홉번 나온다 전부 미혼여자를 가르키는 말로사용되어있다 어느 구절을봐도 기혼자를 의미한것은없다

잠언 30:19절에 나오는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젊은여자라고 할수있다고 하나 그것도 말씀의 전후를 잘 읽어보면 역시 미혼자를 표현하는 말씀인 것을 알수있다 즉 19절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 자취인데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이말씀은 도덕적 전악문제가 아니고 잠언기자는 세가지의 자취를 말한것이 분명하다 남자가 결혼한후의 자취가 아니고 자취자체의 문제를 취급하고있는

것을 알수있다 따라서 애정을 품고 여자에게 가까이 하는 그 남자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것이다

결혼문제와는 별문제인것을 알수있다 그리고 남자란 말씀도 여자에 대한남자라는 말이다 약혼한 남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기혼자로써의 남자라는 말씀은 따로있다

이사야서에 정조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만일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다면 정조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이되고 말것이다 그런고로 해마다 닭치오는 크리스마스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구주를 의미하는것이며 메시아를 축하하는 기쁜날이라는 것을잊지말자

(김경찬 神戸교회목사)

선교 10개년 計畫 積極 推進

위원장에는 오윤태 목사

제25회 총회는 혁신의 총회요 세대적 혁신인 동시에 교회체질의 혁신을 지향하는 총회라 할수있다 작년 1년을 첫해로 제2년

에 들어선 선교 10개년계획위원회는 의외의 큰 성과를 보게되고 어느정도 자리도 잡히고 방향도 정하게 된 1년간의 경험을 살

려서 더욱 적극적인 계획과 강력한 추진을 하기위하여 금번 총회에서 오윤태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총회 원전체목사장로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강령지도와 총회내 각교회가 총력을 다하여 협력하도록 태세를 가취었다

위원은 과거와 같이 위원회를 모여 토의만 하는위원의 관념에서 탈피하여회의는 모이지 않고 각교회에 있어서 세워진 계획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계획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60만 동포구원의 사명을 각자가실천 감당한다는 태세를 세운것이다 위원들은 실행부와 연락을 긴밀히하고 「알림」을 통하여 때때로 세워진 계획을 인식하고 각자가 좋은 계획안을 제안도 하고 총회 전체가 반영이되어 60년선교의 역사의 뒤를 이은 우리로서 감당하여야 할 역사책임을 하나님앞에 극히 진지하게 감당해 나가려는 것이다

1970년도의 큰활동 요향은 ①작년에 단기 선교사의 활동열매로 세워진 佐世保 岡山 桑名 仙台 立川 등지의 교회형성에 적극 힘쓰는 것과 새개척지 北海道 姫路 金沢 徳山 飯塚 등지를 전도지로 순회 전도하는 것과 ②일본교회에 들어가서 우리와 공동전도망을 펴는것 ③본국교회를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대거집회를 개최하여 재일 우리교회와 우리자정을 호소하여 모국교회의 후원회 사업을 추진하는것 ④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교류

하여 외지교회의 공동유대를 가질 일 ⑤교육활동으로 ABACO교육을 우리 총회안에서 실시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⑥청년운동장화에 힘을 쓰는일등

사업으로는 ⑦일본NCC회관에 우리 총회사무실을 설치하여 에큐메니칼운동에 적극 나가는 일과 ⑧지역봉사와 협동전도의 기관으로 KCC회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지를 획두하는일 ⑨예배당건축 (10년간에 기념예배당10개소) 기금을 세우는일 ⑩보육원을 설치하여 지역봉사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일 ⑪양로원 공동모지 설치에 기금을 모으는일 그외에 때를따라 우리에게 요망되는 전도사업에 책임을 감당하고 사상문제 인권문제 후생문제등 사회참여에 일은 태산같고 우리의 책임은 감당키어려울 정도이다 이에따라필요한 재정이 크게 요구되는바 총회안에 각교회는교우 전체가 일심 협력하여 국내 800만원 예산을 충당하여야 한다 이역 누구의 책임이나라 위원장으로부터는 교회 교우전체가 내책임으로 알고 재정의 책임을 저야한다는 것이다

이 크나큰 10개년선교계획에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축복을 빌어 마지않는다 (田 永福 記)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一부를

대 여행

★13日間、1970年11月2日~11月14日
★¥467,100—

기독신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곳을 나도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그의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낱낱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않읍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 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230/TEL (991) 3756

Universal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1970년 1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영 혼 의 양 식

민 음 의 길 고.후.5:17 히브리11:6~10

새해를 맞이한다는 풍경이 우리의 주위를 도다시 접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번거로운 이면에는 어딘가 참된 새로움에 대한 향수가 깃드려 있는 것이 숨길수 없는 진상입니다. 새로, 새로, 하면서 맞이하는 1970년도 얼마큼 있어서 묵은 해로 둘러 보내게 됩니다. 만물이 다 시간과 함께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전도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것이 헛되도다... 해야래는 새것이 없다」고 호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만족한 해답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새로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로 이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영원한 합과 영원의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나아질수 없는 새로운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 자체 속에 인간과 역사의 참으로 새로운 모든것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최후에 어디에 도착하는가를 전혀 모르

고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찌될것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요이 그의 성과를 일체로 하나님께 내어마끼고 즉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 하려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관련된 천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주의를 아주 가까운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덕적과정의 지식 이 아니라 도덕적행동에 있어서의 성실성 인것입니

다. 신앙은 전부를 하나님께 마끼고 그 행방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그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에는 자연히 평온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는자는 떠들어 대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로 부러도 장래에서도 아무 위협이나 공포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어제에 대하여는 「당신은 뒤로부터 나를 돌려 쫓아나이다」하며 내일에 대하여서는 「당신은 앞으로부터 나를 돌려 쫓아나이다」하며 오늘에 대하여서는 「당신은 내우에 그 손을 얹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기록하신 손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모든일에 근심하며 초조하였는지 주님의 일에 얼마나 타산적으로 어리석은 패를 부려왔는지 믿음없는 내가 깊이 주님께 자복하여 그 자비하심과 능력을 다시금 우러러 바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계절에 믿음에 길을 따라 온전한 새로움을 고요이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 가고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감사 하옵니다. 매일의 믿음없는 생활에서 저희를 구원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사 이 해에도 더욱

주님을 저희안에 모셔드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에 모든것을 마끼게 하옵소서. 이로써 온전한 새로움을 지니고 고요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널리 증거 하며 가계 하옵소서. 주님의 공로 의지 하여 기도 올립니다.

—아 멘—

알림 : 지난번 11월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大阪日本 Y.M.C.A.에서 부녀국장 홍영기목사님의 사회로 부녀구역전도회 연석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금년의 포어를 「행동으로 말하자」로 정하여 그 주제하에 위선 2월 중순경에 전국각교회 여전도회 회장 서기를 중심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장소를 淀川基督教善隣館으로 예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더욱 건설적인 여전도회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가정생활 연구위원회와 문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들도 택하여 앞으로는 되도록 모두가 같이 협력할것을 토의 하였습니다. 교회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총무 이 영 숙)

전 영 복 牧 師 님

俞 元 根

織田 禮次는 분명히 田永福보다 알려지지않는 이름이며 친근감을 주지 않은 이름이다. 이 자체가 그분의 일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일본당 일본무사계급인 織田家에서 성장했다. 그분의 말을 빌리면 織田家는 일본전국시대의 용장 織田信長の 직손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도로 수도를 정한

桓武天皇이 시조이며 桓武天皇의 어머니가 백제왕족인 新笠公主였으니 한국은 선조할머니의 외가가 된다. 그분은 완고한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한때 불문에서 불제가 되려고 수련까지 쌓다가 안신입명의 방향을 바꾸어 기독교로 귀의한 동기가 織田牧師를 남게 했으며 같은 교회내에서 교제한 한국인

학생의 권유에 감동하여 한국땅을 밟게한 결심이 전영복목사를 남게 한것이다.

홍안천년이 신앙일심으로 식민지백성에게 전도하려고 단돈 50전을 가지고 목포에 상륙 도보행각으로 서 울까지 도달하여 그분의 기구한 운명의 스타아트가 시작됐다. 그분의 유창한 우리말과 화점도사투리는 주을 온천뒷산에서의 입산수양서 얻은 기사라 한다. 입이 열린 그분이 우리교회에 가까이 하려 했으나 총독부의 밀정취급을 받아 발 붙일수가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함흥탄광을 위시하여 마차에 몸을 실어 함평양도를 두루 다녔다. 이때 일본경찰에게 독립당원과 내통했다는 오인을 받아 고문도 몇차례 겪어야 했다. 마차 전도의 고난과 일경의 탄압이 그분에게는 한민족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으리라. 우리교회에서도 차차 그분을 진실한 벗으로 따뜻하게 맞아 기록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다. 신학공부도 현서울실학대학을 거치 신색다른 코르스를 밟았다. 제이차대전종말기의 중압은 그분을 식민지한국에 있지 못하게 총독부는 본국으로 추방을 해야 쉬었다. 신앙의 자유 언어의 자유 신사참배항거에 식민지백성측에 선 불정일본인은 일정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해방후 그분은 히로시마 벵촌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망서릴때 재일 한국교회가 그분을 모셔냈다. 이때부터 그분의 이름은 전영복으로 불리워졌고 전영복목사를 재일한교와 같이 살기를 다시 운명지워졌다. 해방의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다 루어 귀국하는 교포군을 북강향부두에서의 심부름과 제주머리를 떠어 일본전토에 산재한 남은 신도를 찾는바빠다. 이어 경도교회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패전국의 전후혼란기에 우왕좌왕하는 교포들의 안착과 해방의 환희와 정반대로 실의에 찬 귀환동포들의 밀항자증가는 자연 전목사님의 신세를 지지 않은수가 없었다. 일본인목사의 보증이 일본출입국관리국자에게 유리했기때다. 교포제이 삼세의 범죄행위가 일인에 비하여 격증했다. 일본사회에서의 냉대는 그들을 사회낙오자로 몰아 넣었다. 교회와 전목사님은

여기서도 시정의 선두에서야만 했다. 일본사회의 각성 촉구도 문제가 진하나 범행후의 교도문제도 그분이 저야할 난문중의 하나다. 한편 우리교회에선 그분의 노력에 대한 보답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만년 서기신세를 자인한 그분을 총회장으로 모셨으며 한국을 찾았을때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마지하였다. 옛날의 피압박민족을 도우고 지금도 우리민족을 위한 헌신에 우리민족과 교회는 인식하지 않았다. 그분자신도 보람을 느껴 뜻의 만분지일이라도 나타난 사실에 기뻐했으리라. 그분은 해방후부터 곧장 지켜오던

경도교회를 지난 9월말로 21년간의 풍상을 뒤에 두고 물러났다. 후배에게 넘겨주기 위한 용단이 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총회과 손을 끊은것이 아니라 70년대를 향한 비약 10개년 전도사업의 총간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그분의 사명은 한민족과 더불어 사는데 있으며 전영복목사의 진가는 한민족을 제하고는 발휘하지 못할 관계에 있다. 일본일억인구중유일한 존재임은 누구나 부정할수가 없다. 한일양국민은 인접국가로 인한 축명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민족의 우월 차별로 얼켜 내져오는 현실에 더욱이 60만재일한민족이 약소민족으로 서의 지역사회인으로 생활권을 지켜나가는데 있어 한민족자체의 향상도 물론이거니와 일본인도 좁은 편견을 버릴 70년대가 도래했다. 전영복목사님은 공명 양민족간에 기억을 남길 인물이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감에 응한 그분이겠으나 경도교회의 정든 강단을 후진에게 맡기고 재일 대한 기독교 총회 발전의 일꾼으로 활약하신 전영복목사님께 감사와 기대를 드리면서 이 글을 올린다. (재일대한기독교회 본국연락 책임자)

西西西西西西西西

멋진印刷는



僑 文 社

電話大阪 716-5046

西西西西西西西西

『指導研』への呼びかけ

代表委員 崔 秀 徳

今年度の全協は、来年1月2日より4日まで大阪の堺教会において、指導者研修会＝指導研をもちます。そこでは私達はキリスト者としてこれでいいのか。私達の教会はこれでいいのか。と問いかけた今年度の主題《在日大韓基督教会に变革を》を、これから各個教会、地方会で具体化する契機となるようにプログラムが計画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私達は指導研を通じて、単なる青年会活動ではなく、広く教会に連なる信徒の働きをな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私達の教会は在日韓国人の中で立たされた教会であり私達は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であります。このことの神から与えられた意味を考え、使命を全うすることなく、安易に礼拝をもつことは許されません。私達は在日韓国人としての十字架を担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在日大韓基督教会にイエスの体としてあるのでしょうか？

私達は日常生活においても日本人のようではなく、あるがままの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を主張しますそれは「悔い改めの実」なのです。そして、大きな力で在日韓国人を日本人のように生活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せる一その結果、大部分の在日韓国人は日本名を使っている（使わされて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ー日本社会そのものを告発します。そのことは在日韓国人を締めつけようとする《入管法》、《外国人学校法案》等に対する原理的日常的な闘いでも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私達は民族主義者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相手の人間があるがまま、尊重し、認めようとしないうところに、また商売上の不利益だとか恥かしいということから自分のあるがままを出せないところに、私達は人間の罪の具体的な姿を見るのです。従って「日本社会の告発」というのは、正確には、「罪人である人間社会に対する告発」というべきでしょう。そこには私達自身が入っています。私達は、まず生き方において自分の罪の悔い改めを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いるのです。

私達のことを、暴力学生か社会改革派のように見ているということを、よく耳にします。しかしながら、人間差別があり、社会不正義があり最も大切な人間性を喪失させるような《人間社会》に対して、どうして黙っていることが出来るのでしょうか？またそのような状況の真只中にありながら、個々の人間の生きる力となっていない。観念的な安っぽい福音が宣傳えられている教会に対して、どうしてそれをよしとすることが出来るのでしょうか？

私達は民族主義者でも社会革命家でもありません。まさ

に、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として生きようとするものなのです。私達は福音の上に立って「教会の变革」を唱えます《主の道を備えよ。その道筋をまずぐにせよ》。このことを、たかが青二才の言っていることとし、自らの生き方教会のあり方を悔い改めようとしないうちは、キリストの名にかけて殺す人なのです。

真に教会を教会たらしめるもの、それは主の大いなる御業です。私達はキリスト者として、その大いなる栄光の御業に加わろうとしているのです。全国の各個教会で青年会活動を担っている兄弟姉妹先輩諸氏、そして教職者の方々の参加を期待しております

予備総会に参加して

——在日韓国教会を担うのは誰なのか——

全協中央委 総務 崔 勝 久

先々月、総会に先立ちもたれた《予備総会》に一般信徒が招待され、総会を主体的に担って来た牧師、長老と共に話し合がなされた。青年代表として参加した中央委員の一人として予備総会の感想を書けていうことなので卒直な意見を出してみたい。

命題1 教会を担うべきは信徒である。

まず何故に、初めての試みとして予備総会がもたれたのか。それは前総会長の説明によれば、広く信徒の声を聞きそれを総会に反映させたいという趣旨であった。私達の総会では、機構としては、個教会の諸職会、地方会を通じて一般信徒の声をすべて吸い上げ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従って、総会で決定されることは個教会の教会員の大多数の意志であるかのように見なされる。しかしながら、予備総会で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どうであったか。婦人会、信徒会青年会の代表が訴えたことはみんな一致して、私達の声は総会に反映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一般信徒の総会を占める割合は九割を越えている。その総会構成員の大多数である信徒の代表が、総会の政策、予算、行事人事等において私達の意志が

反映されていないと言ったということは、今度からよく聞いて取り上げ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だけではすまされない問題ではないだろうか。それでは、今までは信徒の意見を聞こうと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今までも聞こうとして来たし、最大限取り上げようと努力して来たとして、その結果が信徒不在の教会となったということは、総会のあり方を根底から考え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もはや、これからの牧師、長老の《心構え》を説くだけでは何ら解決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明らかになったと思う。また、《機構改革》で、信徒の一部を局、或いは総会に参与させることによって、一般信徒の声を反映させるというのも、実は、現在の教会の形骸化した民主主義的機構に実体を与えるのではなく、きれいごとの上塗りをする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をは

っきり認識しておく必要がある。現在のような信徒不在の総会で決定され、実行されるいかなる行事も、宣教も、それがうまくやられればやられる程度に一般信徒や未信者の魂に実存に訴えかけることは出来なく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信徒自身の証しとしての生活、行為こそが、実は一番求められるものであり、それに基きを置かない宣教も教育も、実は福音の安売り押し売り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命題2 青年活動は信徒活動である。

私達青年は、日曜学校の教師、聖歌隊員、青年会員として、教会々員の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る。そういう私達の為す活動は、一部の人が指摘する《お遊び》としての青年活動が終るものなのだろうか私達もまた、福音に出会った者としての証しの生活、生き方を求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青年は教育され、指導されるべき、未だ信仰の足りない者なのではない（この事に関しては大人も同様ではないか）青年の活動は青年個々のものではなく、教会員、信徒としての活動と見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青年が年間100万円の予算で毎年やって来た自主的な全協活動は総会の計画する他のいかなるもの

よりも、宣教、教育の仕事を尽している。私達は知恵と能力とエネルギーのあるだけを使って主題を出し、それに従って行動をし、そして総括をする。勿論、足りない点は私達自身認める。しかし、それはそれで反省し、改善すればよいではないか。その不十分な点を取り上げて、全協の活動を遊びとするのは、競争鳥のごとき視野の狭い人の不業である。

私達の為して来たそのような実際の教育——青年が自主的にやること自体、既に立派な教育になっている——宣教の活動に対して、総会から援助される金額は、年間1,000万円以上の予算の中でたかだか10万円である。これからの教会、総会を担うべき者——実際、全協活動をして来た中から何人かの教職者執事が生まれている——を育成、援助するにすれば、あまりに少ないではないか。またあまりに配慮が足りないではないか。

予備総会で以上のことが何人かの人の口を通じて語られたし、そのような雰囲気であった。青年局で財政《賛助会》なるものを作ろうとする気運も出て来た。どうぞそれらのことを総会の責任において、具体的な形で示してほしい。なお、私達全協の活動に対し、広く一般信徒の理解と協力を得たい。

西南連帯を深める

西南・中国地方の巡回を終えて

全協代表委員の崔秀徳君と総務の崔勝久君は、12月16日の福岡教会を皮切りとして27日の武庫川教会まで、約十日間で八つの教会を訪問した今回の巡回は、従来の「交友」を目的としたものではなく主題の《在日大韓基督教会に变革を》が各個教会においていかになされればいいのかをその教会において具体的に話し合うことが予定されていたそして、実際、いずれの教会においても、牧師を交じえた具体的に話し合いであったが故、話しは抽象論で終ることなく発展していった。時には非常に厳しくお互いのあり方を批判した為、個人批難ととられることもあったが、大部分は青年の問題提起を真に自己の問題として、教会の問題として、受けとめた様子であった。教会によっては、未だ青年に対する誤解があるよう

だが、そのような所では、キリストと共に生きることの厳しさが問われ、そこから問題の所在をはっきり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ろう。

最大の成果として評価されるべきは、地方の個教会と全協中央委との結びつきである事実、巡回した両君の話によると、厳しい話し合いを通して親しい交わりがもたれ離れ難い思いをしたことが度度あったそうである。そしてもっと数多く訪れてほしいとの声が多く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全協の役員との接触が契機となって、各教会、地方会で具体的に《教会の变革》が問題となり、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としての生き方が提案されよう望んでやまない（事実西南地方会の会長から正式にそのような趣旨の一文が寄せられた一燈台16号に記載一）

宣教10個年計画と青年活動

総会宣教10周年計画として多彩な計画が立てられているが、その教会的な目標は「明日への教会」と「宣教の教会」である。「明日への教会」は青年の教会と言うことであり「宣教の教会」は信徒の教会と言うことである。この二つの課題が、目標としての課題であると同時に、教会体質改善の本質的な課題である。

「明日への教会」は単的に
 言って、世代の交替であり
 明日の教会を担う若い世代へ
 の全的な期待である。歴史は
 常に今日的であると共に、明
 へのものである。明日への期
 待のないものは、歴史から葬
 られて仕舞う、死の姿である

我々在日韓国人教会が、今日の教会だけに、すべてをかけて、すべての期待と、すべての労力を費やしている間は明日のない教会となり、目前に、墓穴を掘り、悲壮な葬いの哀歌を無意識の内に唱えていることになる。

宣教10周年計画の中で、一つとして、青年の協力、寧ろ青年の主動的な活動を期待しないものはない。特に、KCC会館建設の歌い文句である地域社会への奉仕、日本教会との共同作業としてのスタッフは青年層に全的な期待を置いているのであるが、そうした宣教活動と併行して、寧ろそうした宣教活動が可能となるため、本質的に教会自体の体質が変えられて行く努力が先決問題である。それが、明日への教会となることであり青年の教会となることである今日の教会を担っている、担って来た年令層は、明日の教会を担う年令層に対して、先輩としての配慮による「その座をゆずる」心構えと、温く見守って行く愛情と、余生力を尽して共に教会を守り、教会に仕え、教会と生死を共にする積極性を持たねばならない。又、明日を担う年令層は今日を担っている。今日まで担って来られた年令層に対して、尊敬と感謝をもって、今日までの労苦に対する深い愛情を持ち、そして、共に教会の責任の場を担い合う配慮と歴史的時点に於いて、真に生ける教会、宣教の教会となるため、意欲と努力を惜しまない積極性がなくてはならない。

「宣教の教会」が、信徒の教会であると言うことは、今

日までの教会が、聖職の教会であったことに対する体質的な問題の指向である。教会は羊の群であり、聖職は牧者であると言う体質から今日の教会の体質が出来たのであったのに対して、教会はキリストの証人の群であり、平信徒も聖職も共にキリストを証し寧ろ、歴史的現実の中に直接的に生活しているのは聖職ではなくて信徒であり、キリストを証しするのは、そうした文化の中に直接的に生活し参加し、従事している信徒であるのだから、信徒の教会となるべきである。

これが歴史の真只中に立つ

宣教10個年計画総幹事
田 永 福

わたしたちも
ボランティア活動

一名古屋教会婦人会一

がむずかしいという理由から
女伝道会（一般の婦人会のこ
と）の協力を頼んだところ
快く承諾してくれて合同でや
る運びとなった。

韓国教会の名に恥じず、おいしい韓国料理をもてなそうと予算とにらめっこしながら苦心惨たんしたが、その甲斐

木枯しが一足飛びにやって来たような肌寒い晩秋の一日11月28日の夕方のこと。名古屋教会の一階ホールは珍しいお客様達を迎えて賑わった。招かれたのは愛知県下の公立私立の精薄、盲児、ろうあ施設に働く保母さん達20名と精薄児をもつ手をつなぐ親の会幹部3名、それに当教会附属の永信幼稚園の先生2名計25名であった。

これは「私達にも社会奉仕が出来ないものかしら」という若婦人会の願いが、婦人会の協力を得て、実を結んだものである。名古屋教会の若婦人会は月例会と家庭礼拝をそれぞれ月一回忠実に守っているが、いつも話題にのぼることの一つに、教会に通うだけが精一杯の信仰生活ではなく、もっと住んでいる社会にも目を向けて行く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今年10月末、市内の社会福祉センターの主事へ、その願いを申し出たところ、乳飲み子を抱えたままでは実際に施設へ出むいて奉仕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り、出来ることといえば、施設で働く人達の慰労会など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ところで話は落着いた。しかし、貧しい財政では満足のかゆくもてなしが出来ないことまた幼い子らが足手まといになって充分な準備をすること

あつてか、思いがけない援助金も入り、自他共に誇り得る豪華な食卓になった。ちなみにプログラムを紹介してみると、晚餐（美しい手製のメニューと料理の解説付）からはじまり、アリラン合唱、高校生による本場仕込みの韓国舞踊、韓国と日本の関係及び在日韓国人についての話し、最後保母さん達の生活と意見をきく座談会などである。

はじめての試みでどうなることかと心配が先立ったことは事実であるが、やってみて本当によかったとむしろこちらが恵まれた会であった。これにたずさわった者一人一人が在日大韓基督教会の婦人が自分達だけの問題に埋没することなく、地の塩としての役割を果すべく努力せねばならないこと、また、若婦人会と女伝道会がもっともっと力を合わせて活動することの意義などを考えさせられた。

なお、二日後の30日の聖日
礼拝後は、¹「嫁と姑」について
の座談会がこれも女伝道会と
若婦人会の合同でもたれた。
世代の違いから来る感覚の相
違は避けられないとしても
互にきたんなく活発に意見を
交換しあい、キリスト者として
の嫁、姑のあり方を建設的
に求めて行こうとする姿勢が
みられたのは大収穫であった
この婦人会の今後の発展を祈
り期待するものである。

申英子記

を与えた。」(イジャ53:1～6) パウロは「おのれをむなしうして僕のかたちをとりおのれを低くして、十字架の死に至るまで、従順であられた」とキリストのことをいっている。(ピリピ2:7～8) ドストエフスキーの『白痴』ではキリストを白痴として書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よって主の平和をつくり出す者として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

3. 遠藤周作の『おバカさん』に出て来るフランス人ガストンは一人の殺人者に追いついて歩きながらバカにされ無視されながら結局は殺人者が一人も殺すことが出来ないようにさせた。彼は自分がバカになってはじめて、このことが出来たことをわからせるのである。人間が人と人との和を作り出すにはバカにされてでもバカになって、はじめて平和を造り出す者になる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人生にも多くの悩みが雲のように群がっておこって来ている。このような時人間の知恵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賢く考えることなく、むしろバカになって、神の知恵にすべてを任かせる時に本当の解決策が見つかり、道が開けるのである（ピリピ4:6～7）

地には平和があるようにと
来られた主の聖誕を迎えるに
当り（ルカ2:14）私たちが平
和をつくる者になりたい。

(金元治)

指導者研修会

開催要項

主催 教青全国協議会
青 年 局

- ・場所：堺教会
- ・日時：1970年 1月2日 PM
 } 5:00
 1月4日 PM
 (礼拝) 1:00
- ・費用：会費 1,000円
 交通費 教会負担
 但し、関東・西南地方
 は教会負担 2,000円
 残額は主催者負担
- ・持参品 ・燈台15,16,17号
 ・資料集
 ・聖書・讃美歌
 ・生活必需品

「平和を造る者」

マタイ 5:1~12

1. 地上には平和があるようにと来られた主の聖誕を迎えるに当り（ルカ2:14）私たちが平和をつくる者となりたい。平和を造ることは困難なことである。工場でものを造り出すには、一定の条件が整えば製品はできるが、平和は同じ条件で同じ平和は作り出せない。それは人間が皆意見がちがいがい、望むことがちがうからである。平和とは戦争のない状態（伝道書3:8）だけでなく、地域社会での調和の出来ている生活、既ち隣り近所での睦しい生活をいうのである（ロマ12:12～16）そこで意見の相違や見解のちがいがから争いやいがみあいがあったりにくしみにまで発展する時が

ある。このような時に意見を
整え、条件をそなえて仲良く
暮らすようにすることは並た
いていな事ではない。そのこ
とをすることが、平和を造り
出す人である。この人は自分
を無にし、ばかにされ無視さ
れたのである。

2.主イエスは神と人との仲に立って、この労を取って下さったので、私たち罪人が聖なる神の前に立って礼拝ができるのである。(エペソ2:14~16) イザヤは予言してイエスの姿を次のように述べてくる。「彼は侮られて人に捨てられ、また、その顔をおおって忌みられる者のように彼は侮られた。彼はみずからこらしめを受けて、我々に平安